

#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박차... 내년 100억원 투입

추진 위원회 개최... 성과 공유 241개 경사로 설치·운송 사업 내년 3개 분야·28개 사업 속도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세미나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이 내년도 100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통해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광양시 무장애 도시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내년도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기흥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이영재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관장, 배혜자 광산특수어린이집 원장, 서준순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양시지회장, 한상호 순천대학교 교수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광양시 무장애 도시 추진 및 현황과 2022년~

2024년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 뒤 2025년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 시행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21년 무장애 도시 조례 제정 후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 3개 분야, 8개 부서, 2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4월20일 장애인의 날에는 '광양시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38개 사업에 총 216억원(시비 167억원)을 집행하며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먼저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의 편의시설 강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경사로 의무설치 제외 시설인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점포 3526개소를 대상으로 경사로 전수조사를 실시, 광양시 노인장애인, 식품위생과, 광양·중마장애인복지관,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SNNC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의 협력으로

2억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41개 소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 계층의 도심권 내 숲산책을 위해 2022년 서산근린공원, 눈소공원을 시작으로 올해 와우공원에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교통·이동 환경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안심주행을 위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특별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보조기기·보장구 수리지원, 휠체어 보조 가방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 시민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또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를 증설하고 저상버스 보급을 늘려가고 있으며 가로수 뿌리가 돌출된 곳들을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승강장도 관리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공감·소통 및 평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했다. 광양시농아노인복지센터 개소, CCTV 등

관제장비 확대, 장애인식개선 교육, 무장애앱터 조성, 무장애지도·점자 매뉴판 제작 배포 등 민·관이 함께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 공감 문화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평가다.

광양시는 내년 3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해 올해보다 16억원 증액된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위원회는 '광양시 장애인복지 계획(5개년)' 연구용역의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 부문을 반영해 현 사업을 재정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기업체 등과의 협력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세미나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김기흥 광양시 부시장은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편한 사회가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7788명의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광양 시민의 삶을 한층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4억6000만원→7억원 대폭 확대

순천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편리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234대를 공급했으며 내년 7억원으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5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 및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과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를 우선 지원하며, 농기계 구입비의 50%, 농가당 1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 및 순천시에 1년(2024년 1월1일 이전)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농작물을 실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소형농기계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5년간 사후관리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지원 자격을 갖춘 농업인 모두에게 소형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내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보성군, 최대 300만원까지

보성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제정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난임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군이 지원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본인 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3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군은 추가로 지원을 확대해 난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를 신청한 가정이다. 지원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시술부터 적용된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서울 공공기숙 '고흥학사' 1월14일까지 입사생 40명 모집

고흥군은 대학생들의 학업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흥흥학사의 2025년도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2월26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흥흥출신향우의 자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30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는 흥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숙사 '흥흥학사'는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에 위치하며, 2인 1실 원룸 형태로 공부방,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새해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 구례군, 매일 오후 8~11시

구례군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시작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에 운영되며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과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구례군 첫 공공심야약국은 구례읍 소재의 △광주약국 △우리네온누리약국 등 2곳으로 전남도와 구례군의 지원을 받아 365일(연중무휴) 운영한다.

광주약국(구례읍 중앙로 36)은 수요일을 제외한 주 6일 동안 문을 열며, 우리네온누리약국(구례읍 동편제길 31)은 수요일에만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061-780-20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



여수시가 관내 전통시장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습수건)를 배부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전통시장에 '화재 대피' 방연마스크 배부

여수시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13곳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습수건) 700매를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통시장 내 주요 지점에 방

연마스크와 사용 안내법을 비치하고,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긴급 상황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배부된 방연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유독

가스 흡입을 막는 습식 마스크로, 신속한 대피와 초기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여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 3750매를 지원했으며,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전기시설 점검, 소방물품 등을 보급에 나서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韓 권한대행 탄핵 표결 불참' 미국행 김문수 의원...지역사회 비난 거세

비난 플래카드 곳곳에 내걸려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로 출국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 곳곳에는 '더불어민주당 순천 당원 일동' 발로 제각된 현수막이 걸려있다. 해당 현수막들에는 '탄핵투표 불참 김문수는 사퇴해라', '투표 불참은 내란동조, 김문수는 사퇴해라', '당 지킴 위반한 김문수를 출당시켜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 2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야권 192명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는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뉘그러한 잘못을 느낀다"며 "저의 본회의 불참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사죄문에도 지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해당 사죄문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이해하고 싶지만, 그래도 심하다', '(미국행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없는 사죄문에서 진정성을 바랄 수 없다', '지역을 욕되게 하지 마라' 등 비난의 댓글이 이어졌다.

순천=배서준 기자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inilbo (전일보) including Kakao Talk and email addresses.